

민주,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의결 '농심 잡기 드라이브'

'수확기 쌀 생산량 3% 초과나 가격 5% 하락시 정부 의무 매입' 골자 여당 불참에 단독 처리...이재명 "대체 작물 지원·시장격리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는 등 '농심 잡기 드라이브'에 가속을 붙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해 불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에 상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끝나는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해수위에서 법사위로 넘어갈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지만 쌀값 문제는 여야의 공통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이 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하지만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대체 작물 지원제도, 일정한 조건에 자동으로 시장 격리제를 하는 시장격리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실제로 쌀값 정상화법 제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해놓고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현수막 붙인 것을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의힘이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역대급 풍년임에도 눈물이 난다는 현장의 얘기를 들었다. 민주당은 농민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선숙 최고위원도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대부분인 250만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상시적이고 근본적인 쌀값 안정화와 농민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관철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며 "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 타 작물 재배를 위한 예산안까지 반영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3분 국민 발언대'에 이어 민주당 지도부 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가 아닌 시민이 발언한 것은 이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쌀값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병완 농협 RPC 운영전국협의회 회장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번 손질할 때는 농업인 소득 문제와 식량 안보 개념이 담아야지 바란다"고 요청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엄청나 전국쌀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은 "2019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어설피게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이 문제(쌀값 폭락)의 도화선을 제공했고, 2021년 시장격리제도를 운영하면서 쌀값 폭락을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악의 사태를 만들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자동시장격리'로 완전한 양곡관리법의 전면 개정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박성준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

나 "현장에 있는 목소리, 쓴소리도 다 받아들여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국민 발언대) 한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문제들은 민주당이 결자해지 자세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각 세우는 유승민...달아오르는 당권 경쟁

국힘 TK 여론조사 1위...정진석에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둘러싼 잠재적 주자들 간 초반 탐색전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유 전 의원이 최근 부쩍 수위 높은 표현으로 여론 주류와 각을 세우면서 경쟁 구도를 달아오르게 한다는 해석도 있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유 전 의원이 중도층 지지를 앞세워 '대안론'에 앞장서는 데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1일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글을 올린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향해 "전박한 발언"이라고 직격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최근 TK 지역의 당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자신을 둘러싼 '역선택 논란'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던 유 전 의원이 당내 주류 세력을 상대로 날을 세우며 차별화

에 본격 돌입했다는 신호로 여겨졌다.

정 위원장을 정조준한 유 전 의원의 발언에 윤상현 의원은 "그야말로 가관"이라며 직격했다.

당권 도전 의사가 있는 윤 의원은 특히 "누가 보면 야당 강경파 정치인", "당원들이 유 전 의원의 그런 정치에 실망하여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탈락시킨 것 아니냐"라며 유 전 의원의 아픈 지점을 파고들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기치로 내걸어 당심(黨心)을 공략하려는 다른 주자들 사이에선 유 전 의원의 행보에 일부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김기현 의원은 12일 오전 BBS 라디오에 출연해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출범 초기 아닌가"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해서 트러블을 만든다거나 해서 과연 당이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대신 전대 조기 가열 국면에서 한 발 떨어져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도 나온다.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권성동 의원은 통화에서 유 전 의원 발언 등에 대한 직접 평가는 삼가면서도 "지금은 당권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당이 어떻게든 단합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감 준비에 매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을 비롯해 그와 공개 설전을 벌이는 주자들을 싸잡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이어 SNS에 글을 올려 "지금은 당권을 놓고 언론 주목을 받을 때가 아니다. 당권경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에 서보려고 서로에게 견제구를 날릴 때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 역시 통화에서 당권 구도와 관련한 질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숙단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한편 다른 주자들에게도 '차중'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화기애애' 김영록·이철우 도지사

나이·정치 경력 등 비슷...영호남 화합대축전 시종일관 친분 과시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11일 상호 협력을 통한 '새로운 지방시대'를 다짐한 가운데 김 지사와 이 지사의 각박한 사이에 이복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과 경북은 1960년대까지 인구, 경제 등에서 1·2위를 다퉈왔으나 이후 수도권과 부산·경남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개발 정책에 밀려 지금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쇠퇴의 위기감을 김·이 지사를 더 가깝게 이끌었다. "지금은 지방시대(지시대), 하나되는 영호남"을 주제로 전남도와 경북도가 공동주최한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도 이러한 맥락에서 마련됐다.

1955년생 동갑내기인 김·이 지사는 부지사부터 국회의원, 7·8대 재선 지사까지 인생의 궤적을 함께 한 사이다.

17개 전국 시도지사 중 7대에 이어 8대 재선 도지사로 선출된 단 2명의 지사로, '지역 균형발전이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기반'이라는 철학을 공

유하며 오랜 친분을 과시해온 것이 이번 대축전 개최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국회 지방살리기 포럼'을 창립하고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함께 방문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김·이 지사는 그동안 두터운 친분과 여러 여건에서 비슷한 지역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왔다. 지난 9월 국회에서 '쌀값 안정화 공동건의문'을 함께 발표했고, 상생협력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철강산업 제도약, 바이오산업 특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도 내고 있다.

김·이 지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향후 지역균형발전과 그에 따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주춧돌을 마련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설립 등 공동현안 해결에 함께 대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비전선언문도 내놨다. /윤현석 기자 chadol@

덕남동 임야, 투자 하실분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합,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23억, 26억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